

# 《黃帝內經素問 · 生氣通天論》의 陰陽體用觀에 대한 試論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韓醫學古典研究所

張祐彰\*1

## The Eum-Yang Body-Function Perspective(陰陽體用觀) in the Saenggitongcheonron Chapter of the 『Hwangjenaegyeong』 (《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

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Jang, Woo-Chang\*

The chapter <Saenggitongcheonron(生氣通天論)> holds great importance in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aspect of disease occurrence, for it contains key concepts of disease of Naegyeong medicine. For this reason, prominent doctors from Jang Gyeong-ak(張景岳) of Ming to Lee Gyu-jun(李奎峻) of late Josun have based their Yang Gi-centered medical theories on this chapter. However, doctors such as Ju Jinhyeong(朱震亨) who have stressed the importance of Eum, also used the contents of this chapter to support their perspective on disease, which means that the main voice of this chapter is still unclear. Based on the previous chapter, it is valid to say that <Saenggitongcheonron(生氣通天論)> uses the Eum-Yang Body-Function Perspective(陰陽體用觀) to establish the fundamentals of life and parallels the uniqueness of each kind of Gi, Eum and Yang, in leading Gi activity in mankind. This philosophy based on the uniqueness of the activity of Eum/Yang Gi expands its target from human to disease in general, becoming actualized as a theory of external/internal body-function perspective. Cultivation methods based on this uniqueness is also being suggested.

**Key Words** : Saenggitongcheonron(生氣通天論), Eum-Yang Body-Function Perspective(陰陽體用觀), Ju Jinhyeong(朱震亨), Jang Gyeong-ak(張景岳)

\* 교신저자 : 張祐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Tel: 02-961-0735.  
E-mail : jangchang@khu.ac.kr

접수일(2010년 10월27일), 수정일(2010년 11월15일),  
게재확정일(2010년 11월16일)

## I. 緒 論

《黃帝內經》의 질병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 <生氣通天論>은 빼놓을 수 없는 편 가운데 하나이다. 이편이 중요한 까닭은 易哲學의 주요 범주인 陰陽體用論의 관점에 따라서 질병의 病機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內外表裏의 질병 분류들을 구축함으로써 사실상 임상한의학의 이론적 기초를 정초하였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이편은 《黃帝內經》의 생명관을 이해하는 데도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生氣通天’이라는 제목이 보이듯이 이편은 질병 발현의 상대성을 야기하는 근본 요인으로서 생명의 본원까지 通觀하는 과정을 통해 질병 발생의 본원을 직시하고 이를 질병이 생기는 본체에서의 음양체용의 관점으로 표명함으로써 한결같이 陰陽體用論의 관점을 빌어 질병 현상의 논리적 구조의 본말을 그려내고 있다. 현상세계의 상대성과 그 근원으로서 궁극적 본체, 그리고 생명의 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원의 상대성을 통관하는 음양체용론적 사유는 기실 內經醫學이 역철학의 논제를 그대로 계승한 결과로서 <生氣通天論>은 물론 <上古天真論>, <四氣調神大論>, <金匱真言論>, <陰陽應象大論>, <運氣大論> 등 《黃帝內經素問》의 주요 편을 관통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生氣通天論>에 주목 하는 이유는, 이편에서 역철학의 음양체용론적 사유가 생명 운동의 변화형식으로서 질병에 대한 경험에 완벽하게 소화됨으로써 陰陽醫學의 이론과 실체가 혼연하게 일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관점에 따라 이 시론에서는 <生氣通天論>의 음양체용론적 사유 틀에 대한 개략적인 해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생명에서 최상위의 음양체용 관계에서 빛어지는 근본적인 음양기의 편차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陽氣가 氣化를 주도하는 陽用陰體와 陰氣가 氣化를 주도하는 陰用陽體의 유형이 존재함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최상위의 음양체용관계로서 <生氣通天論>에서 전체로 작동할 뿐 뜻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太極 문제를 다룬 철학적 논의, 수양 문제를 다룬 道家와 儒家의 논의 및 《黃帝內經》의 <上古天真論> 그리고 이 문제를 氣化 방면에서 구체적으로 입론한 <陰陽應象大論>, <五常政大論> 등의 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것이다. 이어서

이 시론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陰陽體用論에서 도출되는 內外表裏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 병증이 해석되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음양체용의 관점이 생명의 적극적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수양의 실천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차이를 가져오는가 하는 문제를 간략하게 논의한다.

## II. 本 論

### 1. 人有陰陽

#### 1) 生命의 根源과 陰陽 兩道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탐구해가다 보면 결국 생명의 실체는 무엇이나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질병은 생명이라는 실체를 배경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생명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철학 방면에서 진전을 이루어 일찍이 《易》에서 생명의 궁극을 원리적 관점에서 太極이라 정의하였는바, <生氣通天論> 首句에서는 이에 대해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sup>1)</sup>이라 하였다. 이는 현상적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을 陰陽이라 이름했을 때, 음양 변화를 주도하는 궁극적인 요인이 존재하며 이를 ‘天’이라 이름 한다는 의미이다. 韓圭性의 다음 논의는 易哲學의 중심 과제로서 궁극적 본체와 그 성격을 잘 보여준다.

우주는 中의 원리에서 현현되어 그 중심에 생명을 두고 또 그 중심을 기본 하여 운동도 하는 것이며, 또 理와 氣의 中和로 만물이 화생되고 그 화생된 만물은 또 중심에 생명을 두고 그 중심을 기본 하여 생명활동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나 만물의 有形 無形이 모두 中의 도를 얻어야 항존하고 中道를 잃으면 사멸하게 된다. 心性 상의 中이라 함은 마음의 至德이 발현할 수 있는 그의 본지적 心座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즉 道義의 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心境으로 말하면 마음의 사려가 정지되어 至一하고 또 中和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묘경에서 至德의 성품이 출현된다는 것이다.<sup>2)</sup>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 서울. 동양의학 연구원출판부. 1985. p.16.

2)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동방문화. 1992. p.269.

〈生氣通天論〉 역시 질병 현상을 구체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궁극적 본체인 ‘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머리에서 “黃帝曰：夫自古通天者生之本，本於陰陽。天地之間，六合之內，其氣九州九竅五藏十二節，皆通乎天氣。其生五，其氣三，數犯此者，則邪氣傷人，此壽命之本也。”<sup>3)</sup>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생명을 논하건 질병을 논하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形而上의 차원에서 人間의인 차원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中一의 心境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중심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거칠게 말하면 無爲의 길을 선택한 道家가 있고 有爲의 길을 선택한 儒家가 있다.<sup>4)</sup> 도가에서 無爲, 虛靜을 강조하였으니 老子가 “致虛極, 守靜篤”<sup>5)</sup>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다음 王弼의 해석은 虛靜의 의미를 잘 밝히고 있다.

‘虛’하고 ‘靜’함으로써 그 ‘反’하고 ‘復’함을 관조한다. 무릇 有는 虛에서 일어나고 動은 靜에서 일어나므로 만물이 비록 動하고 作하나 결국 虛와 靜으로 復하고 歸한다. 이것이 萬物을 極하게 하고 篤하게 함이다.(以虛靜觀其反復。凡有起於虛，動起於靜，故萬物雖并動作，卒復歸於虛靜，是物之極篤也。)<sup>6)</sup>

반면에 儒家에서는 有爲, 爲仁을 강조한다. 다음 孔子의 ‘克己復禮爲仁’에 대한 朱子의 해석은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仁을 실천한다는 것은 心의 德을 온전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心의 온전한 德은 天理가 아님이 없으나 또한 人慾에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仁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私慾을 이겨 禮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면 행하는 일이 모두 天理에 맞아 본심의 덕이 다시 나에게 온전해진다.(爲仁者，所以

全其心之德也。蓋心之全德，莫非天理，而亦不能不壞於人欲。故爲仁者必有以勝私欲而復於禮，則事皆天理，而本心之德復全於我矣。)<sup>7)</sup>

本心의 德을 본체로 본다는 점에서 儒道 兩家가 일치 하지만 유위와 무위로 길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역》에서 乾坤 兩道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표 1. 乾坤 兩道와 天人 體用

	乾道	坤道
體(天)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至哉坤元, 萬物資生, 乃順承天.
用(人)	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地勢坤, 君子以厚德載物.

朱子は “大哉乾元”의 象辭에 대해 “此專以天道明乾義”라고 하였으니,<sup>8)</sup> 이는 乾道의 體(天)를 밝힌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君子以自強不息”의 象辭에 대해 “君子法之，不以人慾，害其天德之剛”이라 하였으니,<sup>9)</sup> 인간이 天道를 ‘法’하는 用(人)을 밝힌 의미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至哉坤元”에 대해 “此以地道明坤義”라고 하였으니,<sup>10)</sup> 坤道의 體(天)를 밝힌 의미로 볼 수 있으며, “君子以厚德載物”에 대해 “見其高下相因之無窮，至順極厚而無所不載也”라고 하였으니,<sup>11)</sup> 乾道의 用(人)을 밝힌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天道의 體로서 乾道와 坤도가 애초에 길을 달리하므로, 人道의 用에 있어서도 本體를 法象하여 兩道가 달리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自強不息”, “厚德載物”이라는 수양법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이상을 토대로 《易》의 乾坤 兩用과 儒道 兩家の 有爲, 無爲 사이에 일정한 상응관계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 서울. 동양의학 연구원출판부. 1985. p.20.

4) 일반적으로 內經醫學은 도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기통천론> 역시 “蒼天之氣清淨，則志意治，順之則陽氣固。雖有賊邪，弗能害也。此因時之序。”라고 하여 清淨의 길을 강조하였으니 無爲의 類라 말할 수 있다.

5) 王弼 지음, 임채우 옮김. 王弼의 老子. 서울. 예문서원. 1997. p.85.

6) 王弼 지음, 임채우 옮김. 王弼의 老子. 서울. 예문서원. 1997. p.86: 以虛靜觀其反復。凡有起於虛，動起於靜，故萬物雖并動作，卒復歸於虛靜，是物之極篤也.

7) 申泰三 校閱. 原本備旨 論語集註 下. 서울. 明文堂. 1996. pp.45-46.

8) 原本周易. 서울. 一中社. 1991. p.121: 此專以天道明乾義.

9) 原本周易. 서울. 一中社. 1991. p.127.

10) 原本周易. 서울. 一中社. 1991. p.165.

11) 原本周易. 서울. 一中社. 1991. p.169.

표 2. 乾坤 兩用과 儒道 兩路

	乾道 / 儒	坤道 / 道
易	君子法之, 不以人慾, 害其天德之剛.	見其高下相因之無窮, 至順極厚而無所不載也.
儒道	必有以勝私欲而復於禮	以虛靜觀其反復

乾坤으로 표현되는 易道 작용의 양면성은 《正易》의 주요 주제가기도 한데,<sup>12)</sup> 이현중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逆生倒成 작용은 坤道の 작용이며, 倒生逆成 작용은 乾道の 작용으로, 이 두 작용에 의해 天地가 合德하며, 이러한 합덕 작용의 결과로 만물이 생성된다. 역생도성은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에 닿는 작용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즉 대상적 사고를 넘어 자신의 본래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통해 천지의 도를 자각하는 것은 역생도성 작용 원리에 그 근거가 있다. 반면에 자신의 본래성과 일체화하여 자각한 천지의 도를 현실에서 실천 구현하는 것을 도생역성 원리에 근거한다. 생명을 낳아서 완성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본성인 천지지심이 구체화하여 만물이 생성되는 것은 곧 하늘에서 시작하여 땅에서 드러나는 만물의 생성 작용에 비유할 수 있다.<sup>13)</sup>

《정역》의 개념술어가 포함되어 다소 난해하지만, 핵심적인 논리는 乾道와 坤道 작용의 방향성이 반대라는 점으로서, 그 구체적인 차이는 곧도는 하늘을 지향하고 건도는 땅을 지향하여 兩道가 合德 함으로써 萬物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거칠게 말하면, 坤道는 無爲의 길을 지향하는 道家에 비할 수 있고, 乾道는 有爲의 길을 지향하는 儒家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天 본체로부터 출발하여 실천적인 관점에서 생명의 완성을 추구하는 이상 <생기통천론> 역시 음양의 양면적 작용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기통천론> 전편이 黃帝의 논설 “陽氣者若天與日, 失其所, 則折壽而不彰, 故天運當以日光明. 是故陽因而上, 衛外者也.”<sup>14)</sup> 이하로 陽氣가 주어다 되고, 岐伯의 논설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sup>15)</sup> 이하는 역으로 陰이 주체가 되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면 <생기통천론>이 개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원초적 음양 편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陰陽 異道の 관점이 <생기통천론> 전편에 나타나는 질병 인식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음양 체용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생기통천론>에서 陽 주도과 陰 주도도 양분되는 논의를 통합하여, 질병의 인식 상에서 또 修養의 차원에서 한결같이 陰陽體用의 대의를 파악할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이러한 관점 없이 본다면, 양기가 주어로 등장하는 황제의 언설을 취하여 扶陽의 길만을 선택하게 되거나, 陰이 주어로 등장하는 기백의 언설에서 陽有餘陰不足의 실상을 갈파하지 못하고 무정한 기계적 陰陽互根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陰道와 陽道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어 도무지 조리가 서지 못하는 우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12) 韓長庚의 太陰逆生倒成, 太陽倒生逆成 등을 참조할 것. (韓長庚 著. 周易·正易. 서울. 도서출판 삶과꿈. 2001. pp.502-505.)

13) 이현중. 중국철학의 역학적 조명. 수원. 청계출판사. 2001. p.70.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 서울. 동양의학 연구원출판부. 1985. p.16.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 서울. 동양의학 연구원출판부. 1985. p.16.

16) 일반적으로 體用論은 불학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나 《易》의 음양론이 시종일관 체용의 관점을 표명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古林松은 “體用”의 연원은 <繫辭>의 “陰陽合德而剛柔有體”로서 “體用”論의 실질적 함의는 주차와 본말을 구분하는 문제에 있다고 하였다. (古林松. 體用思想的嬗變. 文學教育. 2009. p.126.) 이는 사물의 음양변화에 있어 선후와 본말을 구별하는 것이 체용론의 주된 목적임을 밝힌 것으로서, 음양론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 체용문제가 관건이 됨을 지적한 것이다. 한규성의 다음 논의 또한 體用論의 목적을 잘 밝히고 있다. “음양의 구별을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사에 있어서나, 물체에 있어서의 체용 주객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 사물에는 운동적 면인 작용성을 주로 하여 생각할 일도 있고, 그 형체의 청탁이나 경중을 주로 하여 생각할 일도 있다. 用이란 말은 사물의 동적인 운동적 면을 말한 것이고, 體라 함은 정적인 형체의 청탁이나 경중과 같은 체상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다. 사리나 물체에 있어 그 자체내에 있어서도 체용주객의 구별이 있고, 또 별개체의 상대간에도 주관에 따라 음양이 다르게 된다. 이와 같이 음과 양이 고정된 것이 없어 주객 체용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된다.”(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동방문화. 1992. p.48.)

## 2) 人身 陰陽氣化의 傾斜

개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근원적인 기화의 편향성을 구체적으로 논구한 내용이 <陰陽應象大論>과 <五常政大論>에 보인다.

天不足西北, 故西北方陰也, 而人右耳目不如左明也. 地不滿東南, 故東南方陽也, 而人左手足不如右強也. 帝曰: 何以然. 岐伯曰: 東方陽也, 陽者其精并於上, 并於上則上明而下虛, 故使耳目聰明, 而手足不便也. 西方陰也, 陰者其精并於下, 并於下, 則下盛而上虛, 故其耳目不聰明而手足便也. 故俱感於邪, 其在於上則右甚, 在於下則左甚, 此天地陰陽所不能全也, 故邪居之.<sup>17)</sup>  
 帝曰: 天不足西北, 左寒而右涼, 地不滿東南, 右熱而左溫, 其故何也. 岐伯曰: 陰陽之氣, 高下之理, 太小之異也. 東南方, 陽也, 陽者, 其精降於下, 故右熱而左溫. 西北方, 陰也, 陰者, 其精奉於上, 故左寒而右涼. 是以地有高下, 氣有溫涼, 高者氣寒, 下者氣熱, 故適寒涼者脹之, 溫熱者瘠, 下之則脹已, 汗之則瘠已, 此腠理開閉之常, 太少之異耳. 帝曰: 其於壽夭, 何如. 岐伯曰: 陰精所奉, 其人壽, 陽精所降, 其人夭. 帝曰: 善. 其病也, 治之奈何. 岐伯曰: 西北之氣, 散而寒之, 東南之氣, 收而溫之, 所謂同病異治也. 故曰: 氣寒氣涼, 治以寒涼, 行水瀆之, 氣溫氣熱, 治以溫熱, 強其內守, 必同其氣, 可使平也, 假者反之.<sup>18)</sup>

<음양응상대론>은 耳目의 明暗을 논하였으니 작용(精氣) 위주로 보았고 <오상정대론>은 手足의 寒熱을 논하였으니 本體(形氣) 위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를 종합하면, 동남방 즉 陽用의 경우, 기의 운용은 양기를 위주로 관찰하고 체상은 음을 위주로 봄을 알 수 있으며, 서북방 즉 陰用의 경우, 기의 운용은 음기를 위주로 관찰하고 체상은 양을 위주로 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의는 현실적으로 陽用과 陰用을 기화와 체상 양면에서 구별 가능케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오상정대론>은 또한 “故治病者, 必明天道地理, 陰陽更勝, 氣之先後, 人之壽夭, 生化之期, 乃可

以知人之形氣矣.”라고 하여 이러한 차이가 치료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말하였으며, “西北之氣, 散而寒之, 東南之氣, 收而溫之, 所謂同病異治也.”라고 하여 이러한 차이가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 ‘同病異治’의 상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개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음양의 편향성이란 결국 후에 李濟馬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체질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黃帝內經》의 人有陰陽論이 곧바로 四象體質論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답은 <通天>에 보이니, 少師가 황제의 질문에 “余嘗聞人有陰陽, 何謂陰人, 何謂陽人. 少師曰: 天地之間, 六合之內, 不離於五, 人亦應之, 非徒一陰一陽而已也, 而略言耳, 口弗能遍明也.”<sup>20)</sup>라고 답한 것이 그것이다. ‘非徒一陰一陽而已也’는 陰用과 陽用 만으로는 전모를 포착할 수 없으며 個性化가 일어날 수 있는 ‘四’ 또는 ‘五’의 數를 빌어야만 內外表裏의 四面을 갖추어 전모를 포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陰用과 陽용으로 陰陽氣化 편향의 대략을 살필 수는 있으므로 ‘略言耳’라고 하였으며 바로 이런 인식 때문에 少師는 체질을 論한 編에 ‘通天’이란 제목을 붙이고 人的 선천적 품부로서 四象과 五態를 立論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음양응상대론>과 <오상정대론>에서 말한 것이 바로 少師가 말하는 略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略言인 까닭은 기화의 편향만으로는 구체적인 병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病狀이 나타내는 陰陽의 內外表裏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兩者를 合參해야만 병의 眞情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1)</sup>

## 2. 病之陰陽

### 1) 陰陽 內外表裏의 뜻

개체 수준에서의 질병 현상의 이해에 음양체용론적 관점을 도입하는 경우 두 가지 차원의 체용에 대한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5.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五常政大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55.

19) <陰陽應象大論>은 ‘陽者其精并於上’이라 하였으나 <五常政大論>은 ‘陽者, 其精降於下’라고 하였으니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동일하게 음양 체용의 양면성을 논하면서도 하나는 작용을 위주로 입론하고 하나는 본체를 위주로 입론하였기 때문이다.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通天.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02.

21) 이는 辨人和 辨證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東醫壽世保元》의 三陰三陽 인식”을 참조할 것. (장우창. 《東醫壽世保元》의 三陰三陽 인식. 대한한의학회지. 2010. 23(1): pp.304-305.)

관찰이 필요하다. 첫째 앞에서 말한 근원적인 수준에서의 음양의 편차 즉 陽用과 陰用은 대전제로 기능한다. 왜냐하면, 이는 본성적인 음양의 편차로서 질병현상의始終을 지배하는 경향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체 수준에서 음양의 체용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황제내경》에서 본체 차원의 음양은 內外라 말하였으니 <陰陽應象大論>에서 “陰在內, 陽在外”<sup>22)</sup>라고 하고, <金匱真言論>에서 “言人身之陰陽, 外爲陽, 內爲陰”<sup>23)</sup>이라고 하고, <陰陽離合論>에서 “外者爲陽, 內者爲陰”<sup>24)</sup>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內外에 비해 表裏는 음양의 작용성을 중심으로 표현한 용어로서, ‘表裏’는 陰을 本體로 다시 陰陽의 작용이 일어나고, 陽을 본체로 다시 음양의 작용이 일어남을 말한다. 내외와 표리가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황제내경》에서 본체와 작용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內外와 表裏를 구별하였다. <陰陽應象大論>에서 “四時陰陽, 盡有經紀, 外內之應, 皆有表裏”<sup>25)</sup>라고 하였으며, <金匱真言論>에서 “此皆陰陽表裏內外雌雄相輸應也”<sup>26)</sup>라고 하였으며, <陰陽離合論>에서 “氣裏形表而爲相成也”<sup>27)</sup>라고 하였다. 이상의 兩面的 체용관계에 입각하여 입체적으로 질병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內外表裏’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진단에 있어 인체의 구조와 기능 양면을 통관하는 음양의학 특유의 방법론으로서 결국 人形觀에 해당하기 때문에 <陰陽應象大論>에서 이를 찬탄하여 “余聞上古聖人, 論理人形, 列別藏府, 端緒經脈, 會通六合, 各從其經, 氣穴所發各有處名, 谿谷屬骨皆有所起, 分部逆從, 各有條理, 四時陰陽, 盡有經紀, 外內之應, 皆有表裏, 其信然乎.”<sup>28)</sup>라고 하였다.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4.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金匱真言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0.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9.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3.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金匱真言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0.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9.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 서울. 동양

음양의 내외표리 운동이란 결국 <음양응상대론>에서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sup>29)</sup>이라고 말한바 形氣와 精神의 부단한 상호전환에 의해 생명의 지속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동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강조해 두어야 할 사실은 陽用인 경우와 陰用인 경우에 기화의 방향성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때문에 陽用의 경우 陽性이 圓而神하여 上向 歸化하는 운동을 하므로 氣에서 精으로 가는, 즉 “氣歸精, 精歸化”의 방향으로 기화가 주도되며, 陰用인 경우 陰性이 方而知하여 下向 成形하는 운동을 하므로 精에서 形으로 가는, 즉 “化生精, 氣生形.”의 방향으로 기화가 주도된다.<sup>30)</sup> 이를 시간 변화상에서 관찰하면 陽用은 春夏秋冬의 時序를 따르는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化氣하고 陰用은 冬秋夏春으로 時序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成形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기통천론>에 보이는 내외표리 인식에 있어 陽用과 陰用의 차이를 밝혀 보겠다. 기백이 말한바 “陰者藏精而起亟也, 陽者衛外而爲固也”는 단순한 음양의 호근관계 이상으로 陰用의 기화를 밝힌 의미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內外表裏의 사상적 음양체용관계를 통해 “化生精, 氣生形.”의 기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동추하춘의 역순으로 풀어 보면, 음의 靜함이 지극하여 精을 藏하는 운동을 藏精이라 하고 陰이 陽을 얻어 復動함으로써 淸氣를引起하는 운동을 起極이라 하였으며,<sup>31)</sup>

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3.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3.

30) 백유상은 <陰陽應象大論>의 氣轉化 과정에 대해 논의 하면서 “歸”와 “生”자의 차이에 주목하여 음양 양도의 차이를 지적한 바 있다. “歸는 모두 氣가 진화되는 과정이다. 미에서부터 시작하여 形, 氣, 精의 순서로 氣가 진화되어 결국에서는 精으로 귀결되는 것이 바로 다시 先天의 세계로 돌아가는 방향이며,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精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生의 개념은 생명체가 선천적으로 품부 받은 창조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재생산해 내는 과정이므로 매우 차원 높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氣에서 精으로 化하는 과정과 精에 精氣가 化하여 萬物을 다시 化生하는 과정은 다르다.”(백유상.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轉化 과정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1): pp.8-9.) 이는 또한 <正易>의 逆生倒成, 倒生逆成의 논리와도 상통한다.

陽의 동합이 지극하여 神이 發하는 운동을 衛外라 하고 陽이 음을 얻어 復靜함으로써 形을 성하는 운동을 爲固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순차대로 보면 음의 주동에 의해 정에서 기를 일으켜 형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황제가 말하는 陽用의 경우 외는 분명하게 “陽因而上, 衛外者也.”로 기술되어 있으나 內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陽用의 內傷證을 기술한 내용을 참고하면 “陽氣者, 煩勞則張, 精絕辟積”, “陽氣者, 大怒則形氣絕”<sup>32)</sup>이 內의 표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內의 表에서는 形氣가 문제가 되고 內의 裏에서는 精이 문제가 됨을 표명한 것이다. 이상을 춘하추동의 순차로 풀어 보면, 因上은 양이 動하여 기가 상승하는 과정이고 衛外는 양이 음을 얻어 靜함으로써 형을 기르는 과정이다. “大怒則形氣絕”은 음이 靜하여 形氣를 伐함을 암시하며 “煩勞則張, 精絕”은 음이 양을 얻어 復動함으로써 精으로 化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양의 주동에 의해 氣를 發하여 精으로 귀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陽用 陰用의 四象 轉化

時令	春	夏	秋	冬	
陽用	방향	氣 → 精(順時)			
	기화	陽因而上	衛外者也	大怒則形氣絕	煩勞則張 精絕
陰用	방향	(逆時)形 ← 精			
	기화	爲固	衛外	起極	藏精

여기서 잠시 陰用의 내외표리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起極’의 뜻을 살피고자 한다. 王冰 이래 極을 빠르다는 뜻으로 이해함에 따라<sup>33)</sup> 이 구의 해석이 분명치 못하게 되었으나 최근 甲骨文 연구에 의하면 ‘極’은 인간이 밭로 땅 꼭대기에 서서

31) 그러므로 이때 일어나는 기는 《黃帝內經》에서 보통 정기라고 부르는 음중지양의 음칭지기이다. 張志聰이 “陰者主藏精, 而陰中之氣, 極起以外應.”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集註·生氣通天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 서울, 동양의학 연구원출판부, 1985. p.16.  
 33) 王慶福 책임편집, 王冰 次注, 黃帝內經.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4: 極數也.

머리로 하늘을 대하는 모습을 본뜨고 있다.( 丿 丿 )<sup>34)</sup>

이는 정확히 오늘날 ‘極’의 의미이다.<sup>35)</sup> 따라서 起極은 음의 동합에 의해 陰清之氣가 일어나 成形의 터전을 마련하는 작용을 함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6)</sup> 이 清陰之氣가 成形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함을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陰精에서 일어난 清陰之氣가 반대편에서 오는 陽氣 즉 어느 정도 形화된 形氣를 일면 肅殺함으로써 外로 形을 이루고 일면 包裝함으로써 內로 精으로 化하는 데에 결정적인 작용을 함을 볼 수 있다.

### 2) <生氣通天論>의 內外表裏 인식

<생기통천론>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질병의 병기 분석에 의한 분류인데, 그 기준은 정확하게 내외표리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먼저 陰用의 병증을 원리를 고려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陰用 發病의 內外表裏

本體	作用	用象	因	證	位
內(陰)	表	藏精	陰不勝其陽	脈流薄疾 并乃狂	脈流(營氣)
	裏	氣極	陽不勝其陰	五藏氣爭 九竅不通	五藏氣(精)
外(陽)	表	衛外	風客淫氣	精乃亡 邪傷肝	氣(陰氣)
	裏	爲固	因而飽食	筋脈橫解 腸澀爲痔	筋脈, 肝氣, 腎氣(形)
			因而大飲	氣逆	
		因而強力	腎氣乃傷 高骨乃壞		

因, 證은 원문 그대로이며 位는 이를 해석하여 정한 것이다. 因, 證, 位를 고루 참조할 때 이상의 병증이

34) 馬如森 著, 殷墟甲骨學.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7. p.493.  
 35) 唐容川은 ‘極’이 옛날 ‘極’자임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단, 起極의 뜻을 곧바로 太極과 같다고 본 점은 무리가 있다. 이는 양의와 사상을 혼동한 때문이다.(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醫易通說.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569.)  
 36) 張景岳은 極을 氣의 의미로 보아 起極을 ‘精化爲氣’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기가 발생하다는 의미로 본 것은 맞지만 精化爲氣의 氣는 양기로서 ‘起極’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음기와는 방향이 정반대이다. 이는 장경악이 음양 양도 가운데 일도만을 위주로 하는 의학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7.)

모두 陰虛를 근간으로 하는 병증임을 알 수 있다. 이는 陰虛를 바탕으로 하는 病證의 내외표리를 기준으로 정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陽用에서와 달리 內病을 먼저 기술한 점 역시 陰虛의 경우 내상에서 내의 지극한 陰虛를 바탕으로 외에서 음양이 상쟁하는 경우를 最危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陰不勝其陽，則脈流薄疾，并乃狂。陽不勝其陰，則五藏氣爭，九竅不通。”<sup>37)</sup>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陰不勝其陽，陽不勝其陰”은 음 안에서 다시 음양을 나누어 보는 의미로서, 내의 음허를 바탕으로 외에서 음양이 승부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승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陰不勝과 陽不勝이 각기 독립적인 병증이라기보다는 병기의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병증이 전화하는 양단을 붙잡아 설명한 의미로 보아야 실제에 가깝다. <六節藏象論>, <脈度> 등의 편에는 음양이 승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最危證으로 “脈流薄疾，五藏氣爭”의 증후를 포함하는 關格의 병증이 나타난다.<sup>38)</sup> 이에 대해 張景岳은 陰虛를 기반으로 하는 위증으로서 사망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니, 陰陽俱盛하다 한 관격의 병기를 적절히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sup>39)</sup>

外感의 경우 역시 陰虛를 기반으로 초기부터 陽邪가 급격히 항성해져 精氣를 손상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陽用의 경우처럼 양기 승강불리의 유형에 따라 寒, 暑, 濕, 氣를 구별하지 않고 陰精을 중시하여 “風客淫氣，精乃亡，邪傷肝也.”<sup>40)</sup>라고 하였다. 더욱이 여기에 陰傷을 가중하는 飽食, 大飲, 強力 등의 요인이 가중되면 外證의 단계에서 이미 陰氣나 精에 손상이

미치는 위중한 경우가 출현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sup>41)</sup> 이상을 통해 陰用에 있어 병기의 핵심을 陽邪의 亢盛과 陰精의 虧損이라는 체용 양면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여실히 볼 수 있다.

다음은 陽用의 분류이다.

표 5. 陽用 發病의 內外表裏

本體	作用	用象	因	證	位
外(陽)	表	衛外者也	因於寒	欲如漣樞 起居如鶩 神氣乃浮	皮毛
	裏	陽因而上	因於暑	汗煩則喘喝 靜則多言 體若燔炭 汗出而散	肌肉
			因於濕	首如裹 濕熱不攘 大筋痠短 小筋弛長 纏短爲拘 弛長爲痿	筋脈
內(陰)	表	日(形氣)	大怒則形氣絕	爲重 四維相代 陽氣乃竭	陽氣
	裏	天(精氣)	煩勞則張 精絕	薄厥(血宛於上)	血氣

陽用의 경우 生氣가 곧 陽氣이므로 陰用과 반대로 양기의 上升不利에 의한 鬱滯와 그에 과급되는 형체의 손상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여 네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表病이 裏에 미친 경우를 더욱 자세히 변별하였으니 역시 근본을 중시하는 뜻이다. 陰用과 비교해 보면 같은 外感으로 陰에 손상이 미치는 경우라도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즉 陰用의 경우 외감에서 쉽게 음에 손상이 미쳐, 肝氣, 腎氣가 상하기까지 한다고 보았으나 陽用의 경우는 暑, 濕의 경우에도 병위가 여전히 外에 있으며 깊이 과고들더라도 음이 상하기 보다 양기가 상하여 陽氣內竭로 마친다고 하였다. 內傷의 경우에도 양기가 주체가 되어 초기에 양기가 鬱하다가 陽鬱이 극심해지면 精氣가 소모되어 真氣가 위축되면서 厥하는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陰用의 내상에서 음허를 바탕으로 表에서 음양이 승부하는 양상을 띄는 것과 판연히 다르다. 이상을 아래와 같이 대비해 보면 음양의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41) 朱丹溪는 여기서 말하는 “飽食, 大飲, 強力”의 因에 대해 “大怒則火起於肝, 醉飽則火起於胃, 房勞則火起於腎, 悲哀動中則火起於肺, 心爲君主, 自焚則死矣.”라고 하여 相火의 妄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胡國臣 主編. 朱丹溪醫學全書·金匱鉤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58.) 楊金華은 주단계의 음허체질을 논하면서 상화가 쉽게 일어나는 경우는 곧 “陰虛火旺”의 체질인 것으로 인식하였다.(楊金華. 丹溪學說中的陰虛體質思想. 山東中醫學院學報. 1992. 16(3). p.28.)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6.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脈度.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5: 五藏不和, 則七竅不通, 六府不和, 則留爲癰. 故邪在府, 則陽脈不和, 陽脈不和則氣留之, 氣留之則陽氣盛矣. 陽氣太盛則陰脈不利, 陰脈不利則血留之, 血留之則陰氣盛矣. 陰氣太盛, 則陽氣不能榮也, 故曰關. 陽氣太盛, 則陰氣不能榮也, 故曰格. 陰陽俱盛, 不得相榮, 故曰關格. 關格者, 不得盡期而死也.  
39)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6: 是皆酒色傷精所致, 終至不救, 故本神篇曰, 五藏主藏精者也, 不可傷, 傷則失守而陰虛, 陰虛則無氣, 無氣則死矣, 其即關格陽之謂歟.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p.16-17.



표 6. 陰用과 陽用的 陰陽內外表裏 對比

人	病	因	證	證	因	病	人
陽用	外	表	因於寒	欲如運樞 起居如驚 神氣乃浮	精乃亡 邪傷肝	風客淫氣	表
		裏	因於暑	汗煩則喘喝 靜則多言 體若燔炭 汗出而散	筋脈橫解 腸澀爲痔	因而胞食	裏
			因於濕	首如裹 濕熱不攘 大筋縲短 小筋弛長 縲短爲拘 弛長爲痿	氣逆	因而大飲	
			因於氣	爲腫 四維相代 陽氣乃竭	腎氣乃傷 高骨乃壞	因而強力	
	內	表	大怒則肝氣絕	薄厥(血菀於上)	脈流薄疾 并乃狂	陰不勝其陽	表
		裏	煩勞則張 精絕	煎厥(目盲不可以視 耳閉不可以聽 潰潰乎若壞都 汨汨乎不可止)	五藏氣爭 九竅不通	陽不勝其陰	裏

이상 陰用과 陽用的 내외표리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는데 내외의 발병 양식은 <지진요대론>에서 “帝曰：善。病之中外何如。岐伯曰：從內之外者，調其內，從外之內者，治其外，從內之外，而盛於外者，先調其內，而後治其外，從外之內，而盛於內者，先治其外，而後調其內，中外不相及，則治主病。”<sup>42)</sup>라고 한 바와 같이 從內之外，從外之內 외에도 내외가 협잡하는 中外不相及의 경우가 더 있다. <생기통천론>에서는 이 역시 陽用과 陰用을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다. 陽用的 경우 기혈 간에 양기가 축적되어서 생기는 大痺，鼠瘻，癰腫 등의 병증을 기술하고 있는데 모두 양기의 개협이 불리하여 양기가 내에 축적되는 병기를 공유하고 있다. 陰用的 잡병은 “是以春傷於風，邪氣留連，乃爲洞泄。夏傷於暑，秋爲痲瘧。秋傷於濕，上逆而欬，發爲痿厥。冬傷於寒，春必病溫。四時之氣，更傷五藏。”<sup>43)</sup>라고 하여, <황제내경>의 여러 편에서 거듭 언급되는바, 精의 부족 때문에 내에서 바로 발병하여<sup>44)</sup> 동시에 오장의 정을 상하는 유형의 외감을 기술하고 있다.

### 3. 修之陰陽

<생기통천론>의 근본을 중시하는 취지는 병증의 기술에 이어 바로 그에 적합한 수양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陰陽之要，陽密乃固”는 “風客淫氣，精乃亡，邪傷肝也。因而胞食，

筋脈橫解，腸澀爲痔。因而大飲，則氣逆。因而強力，腎氣乃傷，高骨乃壞。”<sup>45)</sup>의 陰用的 외감증에 이어지는 수양방법의 기술 외에도 각 분절의 병증 뒤에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수양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수양법을 음양 내외표리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는 방법을 통해 <생기통천론> 체용 논리의 일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수양에 있어 음양이 구별됨은 앞서 <易>의 乾坤兩道와 儒道 兩家를 통해 그 대체적인 정황을 살핀 바 있다. 修養의 陰陽은 <黃帝內經>의 首篇인 <上古天眞論>에도 정확히 반영되고 있다.

上古之人，其知道者(陰用)：法於陰陽，和於術數，食飲有節，起居有常，不妄作勞，故能形與神俱，而盡其天年，度百歲乃去。夫上古聖人之教下也，皆謂之(陽用)：虛邪賊風，避之有時，恬憺虛無，真氣從之，精神內守，病安從來。”<sup>46)</sup>

“上古之人，其知道者”의 수양법을 살펴보면 <易>에서 “天行健，君子以自強不息。”이라 한 바와 같이 천도를 그대로 본받아(法於陰陽) 생명의 완성에 힘쓰는 자이므로 陰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上古聖人之教下”에 해당하는 내용은 <易>에서 “地勢坤，君子以厚德載物。”이라 한 바와 같이 恬憺을 주로하는 수양으로서 陽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陰陽 兩道の 수양법을 통관해 볼 때 그 主旨는 <易>에서 말하는 天圓地方的 뜻을 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sup>47)</sup>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至真要大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p.304-305.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7.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金匱真言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0: 夫精者身之本也. 故藏於精者, 春不病溫. 夏暑汗不出者, 秋成風瘧.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7.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上古天眞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

표 7. 陽用 陰用の 修養法

		生氣通天論	上古天眞論
用陽	外	暮而收拒, 無擾筋骨, 無見霧露, 反此三時, 形乃因薄.	虛邪賊風, 避之有時
	內	蒼天之氣清淨, 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 雖有賊邪, 弗能害也. 此因時之序.	恬憚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用陰	外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兩者不和, 若春無秋, 若冬無夏, 因而和之, 是謂聖度.	法則天地, 象似日月, 辯別星辰, 逆從陰陽, 分別四時
	內	故陽強不能密, 陰氣乃絕, 陰平陽秘, 精神乃治, 陰陽離決, 精氣乃絕.	法於陰陽, 和於術數, 食飲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能形與神俱, 而盡終其天年, 度百歲乃去.

圓而神은 天道가 圓하여 初末始終이 없이 周流變動하는 變化무궁한 新묘를 측량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方而知는 地道는 靜하므로 有法有方하여 그의 차서가 있고 조리가 있어 知的으로 되어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다.<sup>48)</sup>

다음은 陽用과 陰用の 구별에 外內의 원리를 참조하여 <생기통천론>에 기술된 수양법을 정리한 도표이다.

陽用은 天道에 因順함을 주로 하니 아래에 보이는 “人時”, “順之”가 바로 그것이다. 陰用은 地道를 法象함을 주로 하니 아래에 보이는 “法則天地”, “法於陰陽”이 그것이다. 또한 外에서는 形氣를 중심으로 하였으니 “收拒”, “陽密乃固”가 바로 그것이며, 內에서는 精氣를 중심으로 하였으니 “清淨”, “陰平陽秘”가 그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볼 때 다소 모호하고 신비한 언어로 기술되어 정확한 의미를 포착하기 어려운 <생기통천론> 수양법의 본지에 접근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陰平陽秘’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음양호근의 원리를 설명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陰用에 있어서의 음양호근을 말한 것으로 陰精에 더욱 중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陰平陽秘가 지니는 陰精 위주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으로 朱丹溪를 들 수 있다.

相火는 쉽게 일어나니 五性 厥陽의 火와 서로 무체질하면 망동하게 된다. 화가 허망한 데로 일어나면 변화가 막측하고 무시로 일어나 眞陰을 즐으므로 음이 허해져 병이 들고 음이 끊어지면 죽는다. …주렴계가 말하기를 성인께서 中正 仁義로

안정시키되 靜함을 위주로 하였다.”<sup>49)</sup>

“음력 6월은 未에 속하니 土가 크게 성한 때로서, 土는 水의 夫이므로 土가 왕성하면 水가 쇠하는 법이다. 하물며 腎은 腎시 肺金을 어미로 자양을 받아 자신의 부족을 보충받는다. 그러므로 <내경>에서 그 化源을 자양하도록 간곡히 일렀다. 옛사람들이 여름에 房事를 끊고 음식을 담박하게 먹어 정을 이끼기기 전전 응증하였다.”<sup>50)</sup>

‘平’은 ‘安舒’라 하였으니<sup>51)</sup> 마음을 평온히 하여 상화의 망동을 경계함을 뜻하고, 秘는 ‘神秘不可宣泄’이라 하였으니<sup>52)</sup> 방사를 절제하고 음식을 담박하게 하여 氣를 허투루 泄하지 않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안팎으로 모두 양기의 망동과 허설을 경계하는 의미로서 결국 음정을 지키는 데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음에 대해 ‘平’을 쓰고 양에 대해 ‘秘’를 쓴 데에서 ‘陰陽調和’라 직설하지 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sup>53)</sup> ‘陽密乃固’ 또한 음정이 허하기 쉬운 여름에 방사를

49) 胡國臣 主編. 朱丹溪醫學全書·格致餘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5: 相火易起, 五性厥陽之火相扇, 則妄動矣. 火起於妄, 變化莫測, 無時不有, 煎熬眞陰, 陰虛則病, 陰絕則死. …周子又曰, 聖人定之中正仁義而主靜.

50) 胡國臣 主編. 朱丹溪醫學全書·格致餘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 六月屬未 爲土大旺 土爲水之夫 土旺則水衰 況腎水常藉肺金爲母 以補助其不足 故內經諄諄於資其化源也 古人於夏 必獨宿而淡味 兢兢業業於愛護也.

51) 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繹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2006. p.195.

52) 湯可敬 撰. 許慎 原著. 說文解字今釋 上. 長沙. 岳麓書社. 1997. p.10.

53) 鞏會利와 孫廣仁은 滋補陰氣의 이론이 고대 도가에 연원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도가 사상은 坤卦를 머리로 하여 陰을 숭상하는 사유를 표현하고 있는 <歸藏易>에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生氣通天論>의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보았다.(鞏會利, 孫廣仁. 滋陰의理論淵源及其臨床應用初探. 2009. 天津中醫藥. 26(1). p.46.)

47) 原本周易. 서울. 一中社. 1991. p.1052: 是故蓍之德圓而神, 卦之德方以知.

48)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동방문화. 1992. p.170.

끓고 음식을 담박하게 한다고 한 주단계의 뜻 그대로이다. ‘密’은 곧 ‘謐’이니 양기를 조심해서 써야 형체가 견고해진다는 뜻이다.

陽用의 수양법은 “蒼天之氣清淨，則志意治，順之則陽氣固。雖有賊邪，弗能害也。此因時之序。”라 하였다. 여기서 청정은 본체인 心의 中一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써 수양의 요령은 ‘順之’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因時之序’이다. 여기뿐만 아니라 “陽因而上”에도 ‘因’이 나오고 심지어 ‘因於寒’ 등에서는 병인을 설명하는 상황에서도 쓰이고 있다. 이는 《莊子》에서 기원한 개념으로 <齊物論>에 ‘是因’이라 하였고 <養生主>에 ‘其因自然’이라 하였으며 <德充符>에 ‘常因自然’이라 하였다. ‘因自然’은 장자에 의해 절대자에 몸을 맡김으로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심을 유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sup>54)</sup> ‘因時’의 ‘時’는 곧 ‘天時’로서 ‘自然’과 통하므로 역시 無我的 心境으로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를 때 淸陽之氣가 상승함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因時가 곧 順理하는 태도라면 그 반대는 煩勞이다. 煩은 勞心焦思하는 것을 말하고 勞는 과로하는 것을 말한다. 煩勞하면 ‘張’한다 하였으니 청양이 상승하지 못하고 內鬱하여 火로 변질함에 따라 陽道를 빌어 상승하여 形이 緊張됨을 말한다. 내로는 화가 날로 축적되고 반면으로 양기 상승의 부족에 따라 정으로 회귀하는 것이 더욱 적어지므로 精絶한다 하였다. 왜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煩勞하고 大怒할까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결국 자기 자신과 남, 세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알고, 남을 알고, 세상을 알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것은 흐름을 알아 헛된 의지를 버리고 자연에 자기를 맡기는 것에 불과하다 할 수 있으니 바로 ‘因時’이다. 한편, 外邪의 침습을 예방하는 방법에서도 陽用은 “暮而收拒”이라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기를 닫는 것을 중시한 데 비해, 陰用은 “凡陰陽之要，陽密乃固”라고 하여 양기를 쓰되 과설을 막음으로써 음기와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니 또한 음과 양의 차이가 분명하다.<sup>55)</sup>

### III. 結 論

이상 <생기통천론>의 음양체용론적 관점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생기통천론>이 지니는 의학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누누이 언급하였으므로 이 시론이 제기하는 문제 그리고 이 시론이 지니는 한계 등을 간략히 짚어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감하고자 한다. <생기통천론>은 질병 현상의 본원에서 중국까지를 음양체용론이라는 일관된 논리로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역철학의 음양체용관을 의학에서 요령 있게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특기할만한 것은 辨人과 辨證을 결합하여 질병의 실체에 접근하는 임상한의학의 정통 접근법을 확립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생기통천론>에 보이는 인간에 있어 음양의 변별 그리고 병증에 있어 內外表裏의 변별이라는 주제가 《상한론》에서 다시 임상한의학의 근본 원리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놀라울 뿐이다.

이 시론의 성과를 평가해 본다고 하면, <생기통천론>에 제시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병증들이 지니는 병기가 과연 이 논문의 해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만일 구체적인 병증의 해석에 있어, 陽用과 陰用의 대전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면 이 논문의 논거는 성립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金元四大家, 《東醫寶鑑》 등 각종 전거를 빌어 가능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심증을 굳힐 수 있었으나, 반면에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의혹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다. 예컨대 煎厥, 薄厥 등은 지금에 와서 쓰이지 않는 명칭이며, 陽不勝其陰 등처럼 병명 없이 病機만으로 제시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온전한 해석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개개 병증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후속 연구가 절실하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생기통천론>의 근본을 중시하는 전통을 고려할 때 현금에 유행하는

55) 張志聰은 이때 陽氣를 閉密히 하여 外邪의 침입을 막는 목적이 결국 精의 內亡을 막는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集註·生氣通天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 蓋陽密則邪不外淫, 而精不內亡矣.)

54) 조윤래 지음. 장자사상과 그 정신세계. 서울. 도서출판 장서원. 2000. p.61.

치명적인 질병들에 대해 질병의 근원을 추구하고 음양의 내외표리를 구분하며 그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 및 예방법을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역철학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본체의 中一한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실천의 차원에서 음양 양도를 구별하고 또한 생명의 본질에 입각하여 현실적으로 각각에 적합한 수양방법을 제시하였으니, 노자와 공자에서 멀어지면서 유도 양가가 유위와 무위로 대립하게 된 말류의 철학에 비하면 체용을 겸비한 혼연한 그릇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의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온보와 자음이 각립하게 된 말류에 비하면 근본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질병에 대한 기술이 위중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질병 전반을 살피기에 부족함이 있으며, 표현에 있어 논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표현에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여 완전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수양론에 대해서는 《황제내경》 다른 편의 수양론 및 여러 철학에서 제기된 문제와 결론들 그리고 사상의학 등의 내용을 반추하여 음양체용론적 관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양론을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이 제기하는 문제와 사상의학과의 관련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내경의학은 전통적으로 변증의학으로 알려졌으나 이 논문의 결론은 변인과 변증을 결합한 의학 쪽을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내용을 검토해보면 내경의학에 인간의 음양 변별을 선결 조건으로 변증을 진행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내경의학과 사상의학의 거리가 그렇게 멀다고 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병증의 변화를 주로 했느냐 인간의 체질적 과불균을 중심으로 했느냐의 관점 상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내경의학을 하는 처지에서는 철학과 유리된 지 오래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한편으로 잔존해 있는 신비적인 요소를 이성의 힘으로 완전히 해소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할 것 같다. 역으로

체질의학을 바라보는 처지에서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연구도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은 데다 내경의학의 음양체용론을 심화하여 병증의 변화를 깊이있게 관찰하고 사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다.

## 參考文獻

### <단행본>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1, 16, 17, 20, 23, 24, 25, 29, 255. pp.16-17, 304-305.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15, 302.
3. 原本周易. 서울. 一中社. 1991. p.121, 127, 165, 169, 1052.
4.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동방문화. 1992. p.48, 170, 269.
5. 胡國臣 主編. 朱丹溪醫學全書·格致餘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 25.
6. 胡國臣 主編. 朱丹溪醫學全書·金匱鉤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58.
7.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6, 227.
8. 王慶福 책임편집. 王冰 次注. 黃帝內經.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4.
9.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集註.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 18.
10.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醫易通說.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569.
11. 韓長庚 著. 周易·正易. 서울. 도서출판 삶과꿈. 2001. pp.502-505.
12. 이현중. 中國哲學의 易學的 조명. 수원. 청계출판사. 2001. p.70.
13. 馬如森 著. 殷墟甲骨學.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7. p.493.

14. 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繹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2006. p.195.
15. 湯可敬 撰. 許慎 原著. 說文解字今釋 上. 長沙. 岳麓書社. 1997. p.10.
16. 조운래 지음. 莊子思想과 그 정신세계. 서울. 도서출판 장서원. 2000. p.61.
17. 申泰三 校閱. 原本備旨 論語集註 下. 서울. 明文堂. 1996. pp.45-46.
18. 王弼 지음, 임채우 옮김. 王弼의 老子. 서울. 예문서원. 1997. p.85, 86.

<논 문>

1. 백유상.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傳化 과정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9. 22(1). pp.8-9.
2. 장우창. 《東醫壽世保元》의 三陰三陽 인식. 대한한의학회지. 2010. 23(1). pp.304-305.
3. 鞏會利, 孫廣仁. 滋陰的理論淵源及其臨床應用初探. 2009. 天津中醫藥. 26(1). p.46.
4. 楊金萃. 丹溪學說中的陰虛體質思想. 山東中醫學院學報. 1992. 16(3). p.28.
5. 古林松. 體用思想的嬗變. 文學教育. 2009. p.126.